

## 기독교여성 지식인의 혼종적 주체와 연설\*

이숙진 (이화여대 외래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해외선교의 여성연설 공간

1. 연설공간
2. 연설내용

### III. 식민지조선 여성의 연설공간: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중반

1. 연설공간
2. 연설내용

### IV. 연설의 효과: 혼종적 주체의 형성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2.06>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6S1A5A2A01026302)

---

• ABSTRACT •

---

## Christian New Women's Hybrid Subject and “Speech” in Modern Korea

Prof. Lee, Sookj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Christian New Women's hybrid subject formed by her own “speech” in modern Korean protestantism. Some Korean protestant women made a modern speech as a member of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VM) from the 1920s to the 1930s. SVM was a forerunner of foreign mission bodies of North America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famous for a motto of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This organization gave a chance to Korean New Women to make a public speech in North America by inviting them. As a result they played the role of native informant, becoming a hybrid subject. This paper tri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bridity.

**Key words:** Public Speech Space, Speaking Subject, Christian New Women, Hybrid Subject,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VM)

---

##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연설을 매개로 형성된 기독교계 신여성(이하 기독교여성 지식인)의 주체에 관심을 둔다. 초기 기독교는 창조주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쳤고, 전통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여성혐오의 악습을 끊어내었으며, 여성교육공간을 확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근대 초기의 교회와 미션여학교는 기독교신여성의 등장에 주요한 토대가 되었다. 평등과 자유의 세례를 받은 기독교여성 지식인들은 역사의 수난기마다 가부장주의와 제국주의의 지배질서에 저항하거나 타협하면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기독교 수용이전의 전통사회는 여성을 길들이는 다양한 장치를 고안하였다. 현명한 시집살이를 위한 삶의 기술로 전수된 “병어리 삼년, 장님 삼년, 귀머거리 삼년”이란 속담은 가부장적 질서에의 무조건적인 묵종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기표다. 유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부장적 종교는 여성의 말할 자유를 통제해왔다. “여자는 조용히 복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자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sup>1)</sup>(디전 2:12)라는 바울의 권면이 보여주듯, 기독교 역시 여성의 언권을 통제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개항기 한국 여성들은 기독교를 통해 ‘말하는 주체’(speaking subject)가 되었다. 초기교회는 선교사업의 동력자로 여성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언권을 보장할 수밖에 없었다. 선교의 장에서는 종교적 행위인 공중기도, 성경공부, 방언, 간증은 물론이고, 외국인선교사와 민중의 소통을 돕는 통역행위를 통해 많은 여성이 ‘말하는 주체’가

1) 이 글에서는 새번역성서(대한성서공회)를 인용한다.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초기기독교는 여성주체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세기 말 개항과 더불어 한국사회에 처음으로 연설공간이 마련되었다. 독립협회를 필두로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과 같은 미션학교를 중심으로 공개연설과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독립신문의 투고란에는 연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연설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실렸다.<sup>2)</sup> 최초의 연설공간은 독립협회가 기획한 만민공동회였다. 이 공간에서는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현실을 일깨우고 구국을 위해 민중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주로 전달되었다. 이에 반해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과 같은 미션학교에서는 서구에서 유입된 여성교육이나 남녀평등의 이슈를 둘러싼 논쟁의 장이 형성되었다. 묵종의 덕목을 새겨야했던 한국여성에게도 연설의 기회는 제공되었는데 특히 기독교여성 지식인들은 연설공간을 통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말하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 글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구미에서 여성연설가로 활약한 박인덕의 연설, 그리고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 일본 제국주의의 호명에 응답한 기독교여성 지도자의 연설에 주목한다. 요컨대 해방 이전 가부장제와 제국의 지배논리에 저항(갈등)하거나 협력(순응)하면서 형성된 기독교여성 지식인의 혼종적 주체를 연설이라는 렌즈를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식민지 시대의 질곡을 통과하는 동안 기독교여성 지식인들은 신앙과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되거나 그와 반대로 신앙과 민족을 저버린 변절자로 평가받아 왔다. 물론 이러한 상반된 평가에는 민족주의 담론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연설을 매개로 구성되고 강화된 여성주체의 특성을

2) “최병헌씨의 편지,” 『독립신문』, 1897년 8월 26일자.

살피는 이 글은, 민족주의의 회로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여성의 삶의 자리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을 특정 표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대상화하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II. 해외선교의 여성연설 공간

### 1. 연설공간

이 장에서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 사이에 북미지역의 해외선교를 위한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 이하 SVM으로 표기)에 의해 제공된 연설공간이 박인덕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여성 지식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본다.<sup>3)</sup>

SVM은 19세기말에 창립되어 1936년까지 활발한 활동을 했던 선교단체다. 창립목적은 북미 대학생에게 해외선교에 대한 책임감을 불어넣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매년 새해 첫날 북미지역의 기독교학생들을 초청하여 강연회와 총회를 개최했다. 1928년 1월 1일 SVM은 한국여성 박인덕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주제의 연설을 제안했다.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주제에 대해 수천 명의 젊은이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알고 기뻐서 울 뻔했다.... 그들에게 19세기말에 이루어진 모든 발견 중에 아시아를 대표해서 한국의 여성성의 발견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견은 기독교 덕분이었으며 나의 어머니도 기독교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할 특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 나도 역시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증언했다.<sup>4)</sup>

3) 김활란, 서은숙 등 기독교여성들도 SVM에 연설한 경력이 있으나 1~2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박인덕의 경우와 달리 연설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박인덕의 연설에 집중한다.

SVM이 마련한 이 연설공간에서 그는 대중연설가로서의 자질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회고에 의하면 여러 대륙에서 온 수천 명 앞에 섰을 때에도 별다른 두려움이 없었고, “필요할 때마다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sup>5)</sup> 그후 SVM이 제안한 2년 계약의 순회 연사직(secretary)을 수락하면서 그는 연설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걸었다.

그가 순회연사로 활동하던 당시의 SVM은 미국사회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제기한 선교제국주의론과 SVM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자체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 반기독교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은 박인덕의 말과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귀국 후 어느 잡지사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구미 각국에서 종교를 배척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했으며,<sup>6)</sup> 1936년 SVM 총회 강연자로 초청받았을 때는 그 자신이 “미국에 선교사 자격으로 파송되는 느낌”<sup>7)</sup>이었다고 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해외선교의 열기는 급속히 식어갔고 결국 SVM은 1936년 인디애나폴리스총회를 끝으로 해체되었다.

SVM의 해체 후에도 박인덕은 20여개월 동안 스스로 연설공간을 만들며 활동을 지속했다. 1954년, 1965년, 1977년에 영문으로 집필한 세 권의 자서전<sup>8)</sup>에는 그가 행한 연설의 요점과 청중의 반응, 연설장소에 대한 구

4) 박인덕, *September monkey*, 김세환, 유제관, 『9월 원숭이』(서울: 인덕대학, 2007), 136.

5) 박인덕, *The hour of the tiger*, 김세환, 유제관, 『호랑이 시』(서울: 인덕대학, 2007), 44, 170.

6) 朴仁德 “太平洋을 다시 건너며, 世界基督教大會에 參席코저” 『삼천리』 제8권 1호 (1936), 1월1일. 76.

7) 앞의 책, 207.

8) Pakh, Induk, *September Monke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4)  
 \_\_\_\_\_, *The Hour of the Tiger* (New York: Harper & Row, 1965)  
 \_\_\_\_\_, *The Crow Still Crows* (New York: Vantage Press, 1977)

이중 *September Monkey*는 1954년 출간후 뉴욕타임즈등 주요일간신문에 서평이 크게 실렸고 초판 5천부가 3주만에 매진되는 등 비소설부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영국

체적 묘사, 의뢰인과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연설할 때마다 기록한 메모의 상당부분을 자서전 집필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의 자서전과 연설활동을 보도한 당대의 신문기사<sup>9)</sup>, 그리고 생전의 인터뷰를 토대로 1920년 후반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 구미지역에서의 박인덕의 연설공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연설공간은 1929년에서 1930년 사이에 SVM이 제공하였는데 이 시기에 그는 북미지역의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해외선교 지원자 모집을 위한 순회연사로 활동했다. 2차 연설공간은 1931년 귀국길에 들른 영국과 아일랜드의 23개 대학 기독교서클에서 제공하였다. 3차 연설공간의 경우, SVM의 초청이 계기가 되었지만 순회연사 시절에 맺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마련하였다. 이 때 그는 미국 전역의 대학과 고등학교, 교회 남성단체와 여성클럽을 무대로 20개월 동안 642번의 연설을 하였고 10만km 이상을 돌아다녔다.<sup>10)</sup>

---

의 골랜즈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호주, 남미등 6개국에 발매되었고, 55년에는 독일어와 노르웨이 같은 유럽어로 번역되었다. 김옥동, 『한국계 미국인인 자서전 작가』, (서울: 소명출판, 2012), 107

9) 대표적인 강연기사는 다음과 같다.

“Mrs. Induk Kim spoke about competing Korean youth movements, marriage, religion, and culture change in Korea.”<https://archives.library.illinois.edu/slc/korean-illini/>, “新年大講演 平壤서 開催: 演士는 朴仁德女史”, 『동아일보』 (1932), 1월4일자; “平壤權友會 新春大講演會 演士 朴仁德女史”, 『동아일보』(1932), 1월22일자; “朴仁德氏의 歐米漫談會, 태화녀자관서”, 『동아일보』(1932), 2월23일자; “朴仁德氏講演(禮山)”, 『동아일보』(1932), 10월27일자; “女性經濟講演會: 國際職業婦人の 活動(朴仁德)”, 『동아일보』 (1933), 4월 21일자; “青年修養講座會: 講師 吳天錫 朴仁德 鄭景玉 三氏(平壤)”, 『동아일보』 (1933), 8월 27일자; “본보 혁신기념-특별강연회 개최, 연사는 여자사업가 박인덕씨”, 구미열국의 실제사정, 농촌여자의 향상, 『한국중앙일보』(1933), 11월5일자; “少年問題 講演 中等生에게 限; 少年과 娛樂(朴仁德)”, 『동아일보』(1934), 4월25일자; “全州; 基督教青年會主催로 宗教大講演會 朴仁德女士를 초빙하여”, 『동아일보』(1934), 5월29일자; “개성강연회, 연사 박인덕씨”, 『한국중앙일보』 (1934), 9월23일자.

10) 박인덕, 『9월 원숭이』, 214-216.

## 2. 연설내용

기독교신여성인 박인덕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연설을 하였을까? SVM 최초의 동양인 순회연사가 된 그의 역할은 북미지역 각 캠퍼스의 해외선교 동아리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SVM 선교위원회가 교육시킬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것이었다.<sup>11)</sup> 그러하기에 강연내용은 기독교 해외선교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연의 주된 소재는 한국종교, 한국농촌상황, 한국/한국인/한국문화였다.<sup>12)</sup> 먼저, 한국종교는 기독교 선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소개되었는데, 대표적인 비판 대상은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다. 각 종교에 대한 비판의 논점은 다르지만, 기독교의 세례를 받은 그에게 한국의 전통종교들은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못한 종교, 즉 폐기되어야만 하는 낡은 종교로 이해되고 있다.

불교는 수동적인 종교가 되어... 일상에서의 탈출을 통해 자기 자신만의 구원을 얻으려 한다... 불교는 내 어머니에게나 나에게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일본의 통치로 인해 궁핍해진 민족에게 불교는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불교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없었다.<sup>13)</sup>

그의 연설공간에서 재현된 한국불교는 수동적이고 무력한 종교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힘의 종교'로서 한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웃사랑을 강조하

11) 박인덕, 『9월 원숭이』, 140-143

12) 식민지 한국인이면서 미국에서 강연자로 활약한 사람 중에는 강용홀 등이 있다. 그들이 행한 강연의 주된 소재는 박인덕과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였다. 김옥동, 『한국계 미국인인 자서전 작가』, (서울: 소명출판, 2012) 참조

13) 박인덕, 『9월 원숭이』, 151-152

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유교에서는 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의 관계에서 하위자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판단할 기회가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sup>14)</sup> 따라서 유교는 억압적 도덕에 근거하여 순종적 주체를 만드는 반근대적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기독교는 당당한 주체를 세우는 근대종교로 간주된다. 샤머니즘 역시 하나의 반문명적 종교로 소개된다.

샤머니즘은 ... 인생에서 겪는 많은 불행은 나쁜 영에 의해 생겨나는 것들이었고 그러한 영을 달래야만 그러한 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종교를 믿으면서 살면 즉 나쁜 악령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사람은 지속적인 두려움, 의심, 불안함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교가 한반도가 개화되면서 점점 쇠퇴하고 있다.<sup>15)</sup>

이처럼 그는 한국종교를 무지와 미신, 반문명과 반근대의 종교로 묘사하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서구 청중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한국 종교에 대한 이러한 폄하는 “희망과 결단력과 열망 곧 삶을 준”<sup>16)</sup> 기독교와 대비되며 한국은 이러한 ‘생명의 종교’를 통해서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담론 전략의 산물이다.

연설내용의 핵심적 주제의 하나는 한국의 농촌상황이다. 그는 선교가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모든 봉건적 요소를 타파하는 ‘문명화’임을 청중들에게 강조하였다. 문명의 시선으로 조선을 볼 때 가장 낙후된 쪽은 농촌이고 또 여성이었다. 1937년 미국에

14) 위의 책, 153.

15) 위의 책, 150-151.

16) 위의 책, 154.

서의 두 번째 연설공간에서 그는 자신이 관여한 농촌사업을 소개하고 직접 겪은 한국농촌과 여성농민의 비참한 삶의 현장을 묘사하면서 미국교회의 물질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연설의 소재는 모두 비참한 한국인 농부와 그 가족들이었다. 내가 4년 동안 들인 노력을 설명하였다. 우선 물질적인 도움이 주는 것이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대개 연설을 한국의 농가에 한 마리의 공동소를 주는 것이 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며 끝마쳤다. 이 여정에서...33마리의 소가 한국의 농촌에 지원되었다.... 플로리다에 사는 폭스부인은 700달러를... 그녀의 자매들도 100달러를 주었다. 그들의 지원금으로 한국에서 <농촌지도자양성센터>를 시작할 수 있었다.<sup>17)</sup>

가는 곳마다 교회 참석률이 현격히 떨어져 사양길에 접어든 미국교회<sup>18)</sup>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설에 대한 미국 청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문명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한국, 15달러로 열 명의 가족이 사는 한국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독교선교가 절실하다는 식민지 여성의 생생한 육성, 문명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미국기독교인들의 사명감을 일깨우는데 나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가 농촌여성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모금한 돈의 힘이었다.

한국/한국인/한국문화도 박인덕의 연설공간에서 빠지지 않는 중심 내용이다. 그가 자주 구사한 서사전략은 조선의 봉건적 가부장성에 대한 폭로였다. 그는 야만의 상징이 된 조혼과 축첩의 악습, 그리고 남녀칠세 부동석과 남존여비의 풍속에 속박된 여성의 현실을 고발하고 여학교의

17) 위의 책, 214-216.

18) 앞의 책, 217.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선의 반문명적 상황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전략은 ‘아시아 여성들을 이교적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속히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서구 청중에게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이국적이고 생경한 풍속도 청중의 이목을 끄는 주요 소재로 연설에서 자주 활용되었다. 당시에 박인덕의 연설을 취재한 지역 신문이나 대학신문의 기사에 조선의 의복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는 물론이고 민속놀이, 세로로 글을 읽는 독서법 등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sup>19)</sup>

### III. 식민지조선 여성의 연설공간: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중반

#### 1. 연설공간

일제의 강압적 제도권력은 기독교여성 지식인을 연설공간으로 호출하였다.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를 표방했던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전시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한층 강력하고 치밀한 통치술을 구사하였다.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기치 아래 신사참배, 황거요배, 한국어 금지와 일본어 사용 강제, 창씨개명 등을 통해 일상적 삶을 통제하였다. 태평양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보이자 조선청년의 징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30년 중반만 하더라도 조선인을 전쟁에 투입한다면 그 충구가 일본인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국적 차원에서 모두가 일본인이 되자는 기치 아래 애국반 활동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히고<sup>20)</sup> 각종 보국운동이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조

19) 박인덕, 『호랑이 시』, 62.

“Korean Secretary Talks on Change To Student Group”, Daily Illini, November 6 1928, Accessed September 4, 2018. <http://idnc.library.illinois.edu/cgi-bin/illinois?a=d&d=DIL19281106.2.73>

20) 애국반의 조직활동 및 일상의 통제에 대한 연구는 이종민, “전시하 애국반 조직과 도시

선총독부의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정무총감이 주장한 조선인의 징병 반대론은 퇴조한다.<sup>21)</sup> 조선인 징병이 내선일체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인식되기까지는 식민지조선의 지식인, 명망가, 종교인의 역할이 컸다. 조선인 징병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연설, 특히 여성 대상의 연설공간에서는 기독교여성들이 적극 호출되었다.

1938년 교계인사 60여명이 경성기독교연합회 발회식에서 “40만 십자군병들이, 다같이 일어나 총후보국의 보조를 맞추자”는 슬로건 아래 황거요배, 황국신민서사 제창, 성서낭독의 순서로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한국 기독교는 본격적인 친일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sup>22)</sup> 처음에는 경성기독교연합회의 의원 임명 형식으로 다수의 기독교여성 지식인이 동원되었지만 이후 이들이 연설가로 활약하면서 적극적인 친일의 길을 걷게 되었다. 기독교여성 연설가들은 ‘부인회’로 개칭된 여성교회를 비롯하여 방송선전협의회(1937)<sup>23)</sup>와 조선부인문제연구회(1937)<sup>24)</sup>등을 매개로 점차 지배권력이 추진하는 정책의 선전자 역할을 순회 연설의 공간에서 수행하였다.

## 2. 연설내용

이 시기의 연설공간에서 기독교여성 지식인들이 어떤 내용의 연설을 수행하였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되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

의 일상통제”, 『동방학지』 124 (2004)를 참조하라

21) 田中武雄 “小磯 總督時代の概觀”, 『朝鮮近代史料集成』, 第3號 1960, p242

22)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2);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서울: 정음사, 1978).

23) 부인강좌에서 황민화교육을 행한 기독교계 여성지식인은 고흥경, 김활란, 서은숙 등이 있다.

24) 전쟁 협력 및 식민지 협력을 위한 생활 개선을 목표로 전국적 차원의 순회강연 활동을 주로 하였다. 순회강연의 순서와 내용은 황거요배, 축제일 국기 게양, 총독부 의례준칙 준수, 근로보국정신의 양양 등이다. 기독교인 여성연설가로 활동한 이들은 김활란, 고흥경, 서은숙, 차사백 등이다.

화된 전쟁으로 강제적 공출이 더욱 심해지고 식민지 조선인의 삶의 질은 한층 열악해졌다. 그러자 지배권력은 내선일체의 기치아래 각종 형태의 보국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때 여성지식인들은 연설을 매개로 지배체제의 내선일체 기획을 성공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제부터는 충성을 다하고 황국신민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내지 여성들의 정신과 생활을 배우는 데는 국어를 한 마디 두 마디씩이라도 배우는 것이 또한 길이 됩니다. 말을 배우므로 자연히 일본정신에 이끌려짐을 나 자신의 경험으로 압니다.<sup>25)</sup>

보국운동 중 가정보국은 일종의 생활개량운동이다. 주로 의식주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절약법에 대한 강습과 연설로 보국운동은 전개되었다. 기독교여성 지식인들은 전국의 각 지역을 맡아 운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 연설의 내용은 주로 먹거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 한 그릇, 찬 하나 준수 등의 식사 간소화, 혼상례의 간소화,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허식의 잔치 폐지 등이었으며 이러한 실천이 나라를 위한 일임을 강조했다.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증산법을 홍보하기도 했다. 절미의 방법으로 칠분도미와 채소죽을 만드는 법이 고안되고 이에 대한 강습도 실시하였다.<sup>26)</sup>

의복의 경우, 전통 복식을 실용성의 잣대로 비판하고 가정보국에 적절한 복식문화를 널리 선전하였다. 또한 ‘순조선’ 의복의 흰색과 불편한 디자인을 비판하며 가능한 한 실용적으로 입을 것을 촉구하였다.<sup>27)</sup> 1940년에 이르러서는 여성의복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는데, 모든 학교는

25) 박인덕의 징병제에 관한 계몽 연설의 일부다. 연설공간은 감리교단 경성교구 주최로 1942년 5월 18일에 열린 부인 강연회다.

26) 편집부, “戰時下の 家庭과 食糧의 解決方法”, 『여성』 제5권(제8호) (1940), 40-41.

27) 김활란, “실용적으로 의복을 입자”, 『여성』 (11월호)(1938).

국민총력조선연맹이 발표한 국민복령에 따라야만 했다. 이화여전의 경우, 학생생활지도 항목에 한복착용의 전면 금지와 ‘국민복’ 착용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다.<sup>28)</sup> 어린 학생에게도 치마대신 몸빼바지(もんぺ)를 입게 하는 등 일상의 삶 전체가 전시체제로 재편되었다.<sup>29)</sup>

연설내용을 미루어 볼 때, 제국의 가부장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여성’으로 의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지식인의 연설과 달리 여성의 본직으로 간주된 집안일과 가족관리의 영역에서의 내용이 대부분인 연유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물자보급문제의 해결책으로 시작된 음식과 복식의 통제는 식민지인을 훈육하는 효과를 낳았고, 친일로 선회한 교회는 지배당국의 생활개량운동을 확산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여성연설공간은 젊은 여성을 미래의 황민을 출산하고 양육할 모성적 존재로 호명하는 장치로도 기능하였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은 여성교육의 목표를 양처현모의 자질을 함양하여 황국여성을 양성하는데 두었다.<sup>30)</sup> 여성의 황국신민화를 위해 여성연설가들이 동원되었는데 이들의 연설을 통해 “충후의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의 노력은 남자의 출정에 지지 않는 최대봉공”<sup>31)</sup>이라든지, “교육으로 미래의 군인의 아내나 군인의 어머니로 배출”<sup>32)</sup>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유포되었다. 특히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신여성은 친미적으로 분류되어 정신개조교육의 주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28) 이화가정학 5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가정학 50년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69-74.

29) 민숙현, 『한가람 봄바람에: 이화100년 아사』(서울: 지인사, 1981), 217.

30)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31) 박영숙, “二世國民의 戰時教育”, 『여성』 1월호(1940), 22. 이외에도 “시국과 가정교육”, 『여성』 8월호(1940), 16; “신동아건설과 가정의 내조”, 『여성』 9월호(1940) 25. 참조하라.

32) 이숙중, 『매일신보』 1942년 5월 12일자, 이숙중(1904-1985)은 성신여학원 설립자로 기독교 여성지식인이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여성단체에서 연설가로 활약하였다.

1943년 조선청년의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여성은 군국의 어머니로 호명되었다. 김활란은 지금까지 반도여성은 그저 ‘내 아들 내 남편 내 집’이라는 범위에서 떠나보지를 못했다며, 가족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자신의 생명은 국가에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변하였다.<sup>33)</sup> 물론 이 연설의 맥락에서 말하는 국가는 일본제국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국민으로서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sup>34)</sup>이라는 대목에서는 징병이야말로 일본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모성이데올로기와 결합된 ‘군국의 어머니’는 전시체제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아들을 황국의 군인으로 교육시키는 것, 군인의 유가족으로 의연하게 사는 강인함, 다른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 절약한 물건을 헌납하는 행동 등으로 구현되었다.<sup>35)</sup>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의 창설자인 유각경은 조선인 징병을 앞두고 조선의 어머니들도 이제는 자기 아들을 자기만의 자식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일본여성을 본받을 것을 주문한다. 또한 “군인의 어머니로서 ‘야마도 다마시(大和魂)’를 몸소 인식한 후 이 정신을 장래 군인이 될 어린아이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게 교육시켜야”<sup>36)</sup>한다고 역설했다. “우리의 아들은 지금부터 우리 개인의 소유가 아니요 천황폐하의 적자요 국가의 것”<sup>37)</sup>이라는 연설의 이면에는 지원병제나 징병제에 맞선 조선어머니들의 저항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징병제로 인해 갈등하는 모성을 다룬 최정희의 소설에서는 징병제 실시의 가장 큰 장애가 조선 어머니의 가족주의다.<sup>38)</sup>

33) 김활란, “징병제와 반도여성의 각오”, 『신시대』(12월호) (1942).

34) 앞의 글.

35) 이상경,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軍國)의 어머니”, 『페미니즘 연구』, (서울: 한국여성연구소, 2002), 203-241 참조.

36) 유각경, 『매일 신보』, 1945년 5월 12일자.

37) 박인덕, 『기독교신문』 1942년 6월 3일자.

따라서 일제는 징집정책의 실행을 위하여 대대적인 선전전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국가에서 요구할 때에 돌려야 하며 이것을 다할 때 그 명예는 어머니에게 돌아간다”<sup>39)</sup>와 같은 기독교여성 지도자들의 연설은 애국적 어머니상을 유통시키는 주요한 운반자 역할을 하였다.

#### IV. 연설의 효과: 혼종적 주체의 형성

북미지역에서 박인덕의 연설은 ‘계몽된 주체’라는 자의식을 지닌 서구 청중에게 ‘계몽된 자로서의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의 연설은 미몽에 빠져 있는 조선인에게 복음과 문명을 전하는 것이 서구인의 사명임을 서구인 자신에게 주지시키고자 기획된 것이다. 여기서 서구인은 ‘구원의 주체’로, 조선여성은 ‘구원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황인남성으로부터 황인여성 구하기”(saving brown women from brown men)라는 서구선교사의 아시아여성 선교담론과 연동되어 있다.

탈식민주의의 시선으로 볼 때, 박인덕의 강연에는 구원의 대상인 조선의 억압적 이미지와 구원의 주체인 미국과 기독교의 해방적 이미지가 대립되어 있다. 스피박이 식민지 지식인들에게서 보았던 것처럼<sup>40)</sup>, 구미에

38) 이상경, “앞의 글”, 203-241.

39) 사설, “어머니의 중대 책임”, 『기독교 신문』, 1943년 11월 17일. 엘쉬타인은 전쟁은 여성을 소외시키고 이방인으로 만든다고 말하였다. 여성들이 전쟁에 직접 참가하는 능동적 참여자라기보다는 수동적인 희생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lshtain 1987) 그리하여 주로 여성은 애국적인 모성(patriotic motherhood)으로 표상되고 있다. (Macdonald 1987:14) 총후의 모성도 전장에 나가는 아들을 격려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 여성은 군대와 전쟁에서 결코 남성과 동등한 입장을 차지할 수 없다.

40) 가야트리 스피박, critique of ostcolonial reason :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태혜숙, 박미선,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서울: 갈무리, 2005), 40-43, 230-256.

서의 박인덕의 연설공간은 토착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그 자신은 제국을 선망하는 '식민지적 주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국을 선망하는 식민지적 주체로 단순히 폄하할 수 없는 차원이 그의 삶에서 발견된다.

당시 대부분의 근대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그 역시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미션여학교를 통해 복음과 근대적 지식을 얻었다. 그에게 있어 미국 기독교란 봉건사회의 구조와 식민지 현실 속에서 억압의 주체였던 일본제국이나 조선의 가부장적 문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 그 곳은 자신의 잠재력을 구현시켜 주는 공간이자 조선여성의 척박한 삶의 조건을 개선시켜줄 자원을 가진 공간이었다.

식민지 여성지식인들은 자신과 조선여성을 위해 어떻게 근대를 실천 가능한 지향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인덕을 비롯한 기독교여성 지식인들이 얼마나 서구를 욕망하고 모방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보다는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수정하기 위하여 기독교와 서구를 준거점으로 삼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독교와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식민지 조선여성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지렛대였기 때문이다.<sup>41)</sup> 당대의 미국은 조선보다는 훨씬 나아지만 완전한 평등이 실현된 사회는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을 평등의 나라로 상정하고 조선의 모델로 삼은 것은, 조국을 식민지화한 일본을 넘어서려는 무의식의 반영으로 읽을 수 있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박인덕은 미국을 폭넓게 이해한 최초의 한국여성이자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현대적인 삶을 이해할 기회를 가졌던 선구자적

41) 김은실, “조선의 식민지 지식인 나혜석의 근대성을 질문한다,” 『한국여성학』 제24권 2호 (2008), 147-186.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이 강했다. 또한 조선여성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성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했다. 그런데 전근대와 근대가 착종된 식민지사회에서 그려진 자신의 삶의 궤적으로 인해 그를 지지해줄 국내의 인적 물적 자원은 거의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기독교인과 선교단체의 심적 물적 지원은 그를 다시 당당한 여성주체로 세우는데 매우 유용한 자원이었다.

연설이란 장치를 통해 생각의 공유와 감정의 교감을 한 미국청중들에 비해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양면적이었다. 한편에서는 서구인들에게 강연을 한 한국인, 국위를 선양한 지식인으로 높이 평가하였지만,<sup>42)</sup> 다른 한편에서는 구미사회에서 한 그의 강연이 조선의 치부를 드러내었다는 남성 지식인들의 비판과 질책이 있었다. 조선남성의 축첩문화를 폭로한 박인덕의 영국 강연을 현장에서 들었던 조선의 남성지식인은 노골적인 불쾌함을 표실했다.<sup>43)</sup> 식민지 남성지식인들과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의 통합과 저항의 구심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것’에 대한 수세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우리’라는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하는 남성들은 그들이 상정한 ‘우리’에서 이탈하는 여성주의자들에 불편함을 느끼며, ‘반역자’의 표상을 부여하기도 한다. 서구의 청중에게 축첩을 비롯한 가부장적 문화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기독교여성 지식인의 연설에서 남성지식인들은 ‘우리 조선’이 아닌 ‘그들 서구’ 여성과의 연대를 읽었다.

따라서 구미에서의 활동을 접고 귀국한 박인덕에게 조선은 “쓸쓸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곳”이며, “많은 포부를 가지고” 왔으나 “내 포부를 알 아주지 못한” 땅이 되었다. 1936년 SVM 총회 연설을 하기 위한 출국에

42) “遊學과 講演에서 六年만에 米國서 故土에, 세계에 朝鮮을 소개 해, 朴仁德女史 歸郷,” 『동아일보』 1931년 10월9일자.

43) 자서전 『호랑이 시』에는 강연차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에서 만난 두 명의 한국 남성 지식인, 영국에서 수학하고 있던 D.S. 장과 보성대학 학장인 S.S. 김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박인덕, 『호랑이 시』, 158.

앞서 기고한 글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그의 느낌이 격하게 표현되어 있다. “과거 3,4 년간을 한국 땅에 쑥 박혀 있는 동안 너무나 정신상의 피로를 느꼈던 것이며, 또한 모든 것에서 뒤떨어진 듯한 감을 느꼈다.”<sup>44)</sup> “굴러가는 기차도 나의 심정을 물어챌인지 어서 이땅을 떠나자는 듯이 최고스피드로 질주”한다. 반면, “로산젤스, 쉬카고, 미산간호여!”를 부르며 도착한 미국은 “따뜻한 날개”를 가진 곳으로 묘사된다.<sup>45)</sup> 미국청중의 열광과 조선지식인의 냉정 사이에서 부유하는 박인덕의 삶은 “나는 영원한 손님이었고 내 주된 관심은 내 다음 번 집 여주인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것”<sup>46)</sup>이라고 고백했듯이, 그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경계인’의 삶이었다.

1930년대 후반기의 식민체제에서 기독교신여성의 입지는 매우 불안했다. 태평양전쟁으로 일제와 미국이 적대 관계로 돌아서면서 미국선교사들이 귀국하자 친미성향이었던 기독교여성 지식인들의 입지가 위협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일제는 기독교여성 지식인을 연설공간으로 호출하였고 그들은 일제의 총동원체제에 협력하는 식민주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황국신민’과 ‘총후여성’은 연설공간에서 구성된 대표적인 식민지적 주체다. 총 뒤편을 뜻하는 총후의 여성이란 후방에서 전쟁을 도와줄 여성주체를 말한다.

식민체제는 식민지 주민들을 통치의 대상만이 아니라 식민지적 주체로 만들려고 주력하였다. 근대적 질서와 규율을 내재화한 주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주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국의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지배권력은 애국반을 조직하여 매일 아침 배

44) 박인덕, “태평양을 다시 건너며, 세계기독교대회에 참석코저,” 『삼천리』 1월호(1936), 70.

45) 박인덕, “태평양 삼만리 가는 길,” 『신인문학』 제3권 2호(1936), 3월호, 70-71

46) 박인덕, 『호랑이 시』, 77.

례를 검열하였으며, 새로운 내용의 규율을 제정하여 반복적인 실천으로 몸에 각인하도록 유도하는 등 일상의 내면화를 통한 자율적인 식민주체 형성 장치로 각종 규율을 고안하였다.<sup>47)</sup> 이러한 내면화 작업은 식민지 지식인의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식민지적 주체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제하 기독교여성 지식인에게 제공되었던 연설공간은 기독교 선교, 가부장주의, 식민주의, 서구문화제국주의, 일제 등 다양한 세력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이 거대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프레임에 부합하는 여성을 호명했다. 그러나 기독교여성 지식인은 이러한 호명에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협상과 제휴, 혹은 갈등과 탈주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나름의 여성주체를 구성해 갔다.

## V. 나가는 말

할 말을 당당하게 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주체를 키우는 일이다. 여성에게 말을 통제하는 것은 존재억압이 언어탄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연설은 기독교여성 지식인을 주체로 세운 중요한 언술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II장에서 살펴본 해외선교의 공간에서 행한 박인덕의 연설은 일종의 ‘간증’이다. 그의 연설은 분산되어 있던 사건과 경험을 하나의 줄거리로 엮고 이를 간증의 형식으로 청중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취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주체로 거듭났다. 이때 그는 식민지인 이면서도 제국의 시선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서술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적 무의식을 노정하였다. III장에서는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중반의 식민체제가 마련한 여성연설 공간을 통해 기독교여성 지식인이 지배체제에

47) 김진균·정근식(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2000), pp. 24-25.

복무하는 현실을 추적하였고, IV장에서는 기독교여성 지식인의 연설이 구조해 낸 혼종적 주체에 주목하였다.

굴곡진 근현대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기독교여성 지식인들은 한국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여성운동과 계몽운동의 선구자로, 때로는 서구(문화)제국과 일제에 공명하면서 한국현대사의 긍정적/부정적 유산으로 기억되고 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재현되든 기독교여성 지식인에게 기독교는 그들을 근대세계로 이끄는 통로였고,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공간이자 삶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동아줄이었다.

이 글에서 주목한 기독교여성 지식인 박인덕은 기독교를 통해 ‘말하는 주체’로 설 수 있었으며, 기독교는 그의 여성의식을 고양시키는 통로였다. 그가 이해한 기독교는 인격의 신성함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여성과 민족이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하기에 그의 신앙은 현실도피의 방편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호명하는 장치였다. 그는 누구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회를 꿈꾸었고 그러한 사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엄한 존재임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던, 철저한 신앙인이자 근대적 주체였다. 여성을 전통적인 부덕의 이름으로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문화에 저항하면서 수많은 저항담론을 생산한 그는 당당한 여성주체였다. 그의 연설행위는 묵종을 부덕으로 강요한 전통윤리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자 ‘말하는 주체’로 서게 하는 장치였으며 주체화의 도정이었다.

그의 치열한 삶과 사회운동이 개량적이거나 본질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활동으로 폄하된 적도 있다. 그러나 제3세계 출신의 유색인종 여성 연설가라는 다층적 마이너리티로서의 삶의 자리는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야기하였다. 서구에서 행한 그의 강연을 탈식민주의의 잣대로 들여다본다

면, 서구를 향한 강한 선망과 욕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전근대적 가부장주의와 식민지의 모순을 온몸으로 겪고 있던 식민지 여성이라는 삶의 자리를 고려한다면, 서구에 대한 그의 욕망을 비난하기보다는 그가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수정하기 위해 서구를 의식했는지를 물어야 옳다. 자기 자신과 조선여성을 위해 근대를 꿈꾸었던 그는 근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遊學과 講演에서 六年만에 米國서 故土에, 세계에 朝鮮을 소개 해, 朴仁德女史 歸郷,” 『동아일보』(1931), 10월9일.
- “개성강연회, 연사 박인덕씨,” 『한국중앙일보』(1934), 9월23일.
- “女性經濟講演會: 國際職業婦人の 活動(朴仁德),” 『동아일보』(1933), 4월21일.
- “朴仁德氏 講演(禮山),” 『동아일보』(1932), 10월27일.
- “朴仁德氏의 歐米漫談會, 태화여자관서,” 『동아일보』(1932), 2월 23일.
- “본보 혁신기념- 특별강연회 개최, 연사는 여자사업가 박인덕씨,” 『한국중앙일보』(1933), 11월5일.
- “少年問題 講演 中等生에게 限; 少年과 娛樂(朴仁德),” 『동아일보』(1934), 4월 25일.
- “新年大講演 平壤서 開催: 演士는 朴仁德女史,” 『동아일보』(1932), 1월4일.
- “全州; 基督教青年會主催로 宗教大講演會 朴仁德女士를 초빙하야,” 『동아일보』(1934), 5월 29일.
- “青年修養講座會: 講師 吳天錫 朴仁德 鄭景玉 三氏(平壤),” 『동아일보』(1933), 8월27일.
- “平壤權友會 新春大講演會 演士 朴仁德女史,” 『동아일보』(1932), 1월22일.
- 김옥동, “박인덕의 전기와 관련한 오류,” 『동아연구』(2011).
- 김은실, “조선의 식민지 지식인 나혜석의 근대성을 질문한다,” 『한국여성학』24(2008).
- 민숙현, 박해경, 『한가람 봄바람에: 梨花100年野史』, 서울: 지인사, 1981.
- 박인덕, “靑春을 앗기는 佳人哀詞-그리운 梨花칼레지여,” 『삼천리』제7권 제3호(1935), 3월1일.
- 박인덕, “태평양을 다시 건느며, 世界基督教大會에 參席코저,” 『삼천리』(1936), 1월호.
- 박인덕, “파란맑은 나의 반생,” 『삼천리』(1938), 11월호.
- 박인덕, “현대조선과 남녀평등문제,” 『동아일보』(1920), 4월2일자.
- 박인덕. 『9월원숭이』. 서울: 인덕대학. 2007.

박인덕, 『호랑이 시』, 김세환, 유제관 역, 인덕대학, 2007.

박인덕. “태평양 삼만리 가는 길,” 『신인문학』 제3권 2호. (1936) 3월호.

이숙진. “방언과 간증: 성령운동의 젠더정치학.” 『종교문화비평』 10(2006), 9월.

전영우. 『한국근대토론의 사적연구』. 서울: 일지사, 1991.

Induk Pakh, *The Cock still Crows*. New York: Vantage Press, 1977.

“Korean Secretary Talks on Change To Student Group”, Daily Illini, November 6 1928, Accessed September 4, 2018.

<http://idnc.library.illinois.edu/cgi-bin/illinois?a=d&d=DIL19281106.2.73>

“Mrs. Induk Kim spoke about competing Korean youth movements, marriage, religion, and culture change in Korea.” Accessed September 5, 2018.

<https://archives.library.illinois.edu/slc/korean-illini/>

논문투고일: 2018년 10월31일

심사개시일: 2019년 11월09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11일

---

• 국 문 초 록 •

---

이 글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구미에서 여성연설가로 활약한 박인덕의 연설, 그리고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 일본 제국주의의 호명에 응답한 기독교계 여성지식인의 연설에 주목한다. 요컨대 해방 이전 가부장제와 제국의 지배논리에 저항(갈등)하거나 협력(순응)하면서 형성된 기독교여성 지식인의 혼종적 주체를 연설이라는 렌즈를 통해 추적한다. 식민지 시대의 질곡을 통과하는 동안 기독교여성 지식인들은 신앙과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되거나 그와 반대로 신앙과 민족을 저버린 변절자로 평가받아 왔다. 물론 이러한 상반된 평가에는 민족주의 담론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연설을 매개로 구성되고 강화된 여성주체의 특성을 살피는 이 글은, 민족주의의 회로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여성의 삶의 자리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을 특정 표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대상화하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주제어:** 기독교계 여성 지식인, 연설공간, 말하는 주체, 해외선교를 위한 학생자원운동(SVMF), 충후부인

---